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술에 감성을 더하다



26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는 9월1일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설치가 한창이다. 작품 배치가 완료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국제관 모습.

수천송이의 종이꽃이 연출해내는 초현실적인 정원을 거닐고, BTS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김준홍 감독이 제작한 작품 속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된다. 레게 음악가 밥 말리와 장녀 세렐라 말리의 음악, 패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만나고 인공지능 작곡가의 음악을 듣는다.

26일 찾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9월 1일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선보일 5곳의 갤러리는 각각의 주제에 맞는 작품 설치가 한창이었다.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d-Revolution)’을 주제로 10월31일까지 열리는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는 축제다. 5개 본 전시와 특별



홍보대사 알렉사의 홍보영상

## D-5...국제관·체험관·주제관·AI관 등 전시준비 한창 알렉사 홍보영상 유튜브 공개...시간당 300명 관람 제한

전, 기념전, 국제학술행사, 온라인 마켓,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올해 행사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518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총 690여종의 아이টে를 선보인다. 주제관인 1전시실에서는 디뮤지엄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와나 바르셀로나가 협업한 작품 설치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흐드러지게 핀 등나무꽃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4000송이의 종이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LH와 조경진 작가 등이 협업한 작품은 실제 나무를 식재하고, 돌과 흙을 갈아 자연의 느낌을 전달해준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이팝나무 향기를 활용해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인간을 지행하는 5가지 감성을 자극하고 해체해 보여주기 위해 빛, 색, 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까지 공간디자인에 적용했다”고 설명한 김현선 총감독의 의지가 구현된 공간이다.

국제관으로 꾸러지는 2전시실은 독특한 공간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이나 부스 없이 원형의 작은 섬처럼 이루어진 십 여개의 전시공간은 관람객들이 산책하듯 거닐다 멈춰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랍보

르기니를 디자인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르첼로 간디니의 작품과 휠라 110주년 기념 에디션, 몰스킨 에디션, 밥 말리 작품 등이 전시된다.

AI관에서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작곡가인 ‘이봄’의 작품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 ‘로봇암’의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조수미 홀로그램 스테이지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작품 설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진 스콧’으로 인기를 모은 작품과 공간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전원이 유리로 돼 있어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3전시실의 경우 전시가 진행될수록 나무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 또 다른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관람은 코로나 19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1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당 300명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 방역을 위해 예전 행사와 달리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홍보대사인 알렉사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영상도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월봉서원 등 광주의 명소에서 영상을 촬영한 알렉사는 단아한 한복 차림과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고전미와 모던한 이미지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너와 나, 우리 가족 ‘꽃신 그 길을 따라’

연극문화공동체DIC, 27~29일 소극장 공연일번지

차매로 삶의 종착역을 맞은 너와 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펼쳐진다. 연극문화공동체DIC는 27일 오후 7시30분, 28~29일 오후 5시 소극장 공연일번지(광주시 동구 금남로 218-9)에서 연극 ‘꽃신 그 길을 따라’ (사진)를 선보인다. 연극은 이승과 저승의 수평적 상상계를 상징적인 무대 장치와 배우의 움직임으로 구현해 낸 작품이다. 일찍이 엄마를 잃고 차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영은 할머니에 대

한 연민으로 그를 돌보지만 힘들기만 하다. 미영이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던 어느날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할머니를 찾아 나선 미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연극은 박주리 작가의 작품으로 연출은 채민석 이 맡았다. 고창 저승사자는 한중근이, 할머니는 문진희가 연기한다. 미영 역은 박경단이 맡았으며, 이현숙, 김장준, 이재룡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2218-700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연주하는 듯한 몸입감을 준다. 홈페이지 확인. 문의 061-330-784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학계 연구자 유물 공개회

국립광주박물관, 30일, 9월27일, 10월18일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현재 발굴 30주년을 기념해 ‘신덕 1호 무덤’의 다채로운 부장 유물 전시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한 유물공개회를 연다.

이번 공개회는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9월 27일, 10월 18일 오후 2~5시 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취지다. 아울러 호남지역 장고분 성격의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학계에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첫 번째 30일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 이한상 대전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해설 영상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미로마켓 온앤오프’ 전시 모습

## 청년작가들의 ‘미로마켓 온앤 오프’

28일~9월2일 전일빌딩245

청년 큐레이터가 기획하는 신진 유망작가 아트마켓 ‘미로마켓 온앤오프’ 행사가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일빌딩 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열린다.

202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연결된 마음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참여작가의 작품을 10만 원부터 50만 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HOW TO PAINT TIM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청년 큐레이터 그룹 와글와글(김

수영·이혜원)이 기획했으며 기대웅·김유민·김은택·오기리·전혜주·최다솜 등 6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28일 오후 4시 ‘미로마켓 온앤오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Live 방송’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방송에서는 청년 큐레이터와 작가가 직접 아트마켓을 홍보하고 온라인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시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 예약은 30분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62-229-022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클래식 동요 뮤지컬 ‘꿈꾸는 뽕상’

28~29일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유튜브 채널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동요 뮤지컬 ‘꿈꾸는 뽕상’ (사진)공연을 28~29일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꿈꾸는 뽕상’은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동요처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어린이 뮤지컬이다. 당나귀, 코끼리, 백조, 거북이, 사자 등 동물을 매개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다. 마법의 침대를 타고 신비의 꿈나라 몽몽토피아를 구하기 위해 떠난 뽕상의 흥미진진한 모험은 우정과 협동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번 공연은 동물의 특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12개 모음곡이 각각 에피소드별로 재미 넘치는 이야기로 구성되며 음악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확장돼 마치 꿈의 음악제 속으로 들어가 함께



연주하는 듯한 몸입감을 준다. 홈페이지 확인. 문의 061-330-784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